

국악스타 총출동 판 신세대도 좋을시고

고(故) 서암 권순관 화천기공 명예회장은 오랫동안 지역 국악계 등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국창 임방울, 의재 허백련 선생과 교류했던 권 명예회장은 특히 '소리'를 좋아했고, 직접 북을 치기도 했다.

화천기공 등 화천그룹 계열사는 지난 2010년 고인의 아호를 딴 (재)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 화천기공 회장)을 발족했다. 지역 토착 기업의 적극적인 메세나 운동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 서암문화재단은 고인의 뜻을 이어 받아 지역 전통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걸 목표로 삼았다.

재단의 가장 큰 사업은 '서암전통문화대상'(상금 3000만원)이다. 또 장학사업, 학술 연구 및 자료 발간 지원 사업 등도 꾸준히 전개해왔다. 서암문화재단이 출범 5년을 맞은 올해부터 또 하나의 행사를 진행한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대규모 음악회다. 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서암음악회'가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전통 예술과 현대 예술이 어우러진

서암문화재단 제1회 서암음악회...10일 광주문예회관

송순섭·윤진철·남상일·유태평·강은일 등 출연

U대회 개최식 참여 왕기철 '창극으로 보는 서편제'



송순섭



왕기철



박애리



김유우

무대로 무엇보다 화려한 라인업이 눈에 띈다. 광주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국악계 스타들이 총출동했으며 국악에 친숙하지 않은 신세대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공연이다.

국악 프로 사회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악인 남상일과 박애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전남도립국악단(지휘 박승희)의 '남도 아리랑'이 문을 연다.

이어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소리꾼 김유우가 타악 그룹 진명화 함께 '시선 뱃노래'를 들려주며 훈훈 이미희씨가 허튼춤을 선보인다.

정경한 소리꾼들의 판소리도 만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적벽가' 보유자 송순섭 명창이 '흥보가' 중 '제비 노정가'를, 광주시립국악단장을 역임한 윤진철씨가 '수궁가' 중 '토끼 화상'부터 '고고천변'까지를 들려준다. 또 국악 신

동으로 이름을 날렸던 유태평양씨가 '춘향가' 중 '이별가'를 부르며 박애리씨는 관현악 반주에 맞춰 '심청가'를 선사한다.

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왕기철씨가 국립창극단원 민은경·김준수씨와 '창극으로 보는 서편제'를 공연하며 해금 연주자 강은일(단국대 교수)씨가 이끄는 강은일 해금 플러스는 '하늘소', '헤이아', '밀양'을 연주한다.

피날레 무대는 남상일, 서정금씨가 장식한다. 도립국악단의 연주와 어우러진 '흥보가' 중 '흥보가 박 타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공연 전에는 제5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수상자인 한국무용가 서영씨에 대한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서암전통문화대상은 지금까지 악기장 이춘봉(전통공예), 한국화가 박종석(전통회화), 윤진철(전통소리), 김재석(전통기악)씨 등이 수상했다.

공연 수익금 전액은 전통문화예술인의 양성을 위한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티켓 가격 1만원, 5000원. 예매 인터넷 파크. 문의 062-950-1523, 02-3446-9654. /김미은기자 mekim@



고2 미혼모 세진이의 앞날은?

국립극단, 청소년 연극 '빨간 버스'

골목길 박근형 대표 희곡·연출

10·11일 광주문예회관

'청춘애잔', '경숙이, 경숙이 아버지', '너무 놀라지 마라' 등 수많은 히트작을 만들어온 극단 골목길의 박근형 대표가 희곡과 연출을 맡은 신작이 공연된다.

국립극단이 '소년이 그랬다', '레슬링 시즌'에 이어 세번째로 준비한 청소년 연극 '빨간 버스'가 화제의 작품이다. 10일 오후 5시, 11일 오후 2시·6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북구학교부속청소년지원센터 개소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여고 2년생이자인 아이의 어머니 세진이가 주인공이다.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 없는 모범생 세진이에겐 숨겨놓은 아이가 있다. 아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이를 더 더욱 사랑하는 세진이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경에 처한다.

인간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온 박근형이 다소 뻔한 스토리를 어떻게 뛰어난 연출로 풀어내는 작품이다. 각지는·곽성은·이은하·조옥원씨 등이 출연한다.

14세 이상 관람가.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사랑티켓(50% 할인)으로 관람 가능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도 있다. 문의 희망문화협동조합(cafe.daum.net/hopecoop) 010-3615-94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흔에도 무대 서는 영원한 춤꾼 되고파"

서암전통문화대상 서영씨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초등학교 3학년 꼬마는 흥겨운 소리가 흘러나오는 국악원을 빼꼼히 들여다봤다.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처음 본 꼬마는 춤 추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올해로 춤을 춘지 36년이 된 한국무용가 서영(47)씨가 서암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상금 3000만원) 2015년 수상자로 선정됐다.

"큰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지역 전통 무용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준 상인듯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주에고와 조선대 무용과를 거친 서씨는 안무가로 교육자로, 무대 위 춤꾼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씨는 자신의 오늘이 있게 한 스승으로 대한민국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재만 선생과 조선대 김미숙 교수를 꼽았다. 정 선생은 춤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일깨우고 끊임 없이 공부하도

록 이끌어 준 스승이었다. 김 교수는 한국무용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준 선생님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인 서씨는 꾸준히 공부하고, 무대에 서왔으며 제14회 국제 전통춤 대상도 수상했다.

"무대에서 승무, 살풀이, 태평무를 많이 하는데 춤은 출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갈길이 멀지요. 특히 왕비가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추는 태평무는 춤 자체가 어렵고 발디딤이 힘들지만 추고 날 때면 그만큼 성취감이 큼니다. 주변에서 부끄럽게도 제 춤에 감이와 무개감이 있다고들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야죠."

22년간 학원을 운영하며 제자들을 길러온 서씨는 2013년 서영무용단을 이끌고 전국무용제에 참가, '작함'으로 대통령상과 안무상을 받았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됐고, 무용 인생의 한 자락을 정리하게 해 준 상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시하는

게 인성과 성실함이에요. 무용은 그 다음이죠. 제자들이 잘 되서 다시 찾아올 때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춤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춤을 추는 아이들이 가장 자랑스러워요."

서씨는 올해 학원을 접고, 광주 송원대 실용무용예술학과 교수로 임용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려 해요. 가장 바라는 것은 지역의 한국 무용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졸업생들이 취업이 잘 되서 추고 싶은 춤을 계속 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어요. 현재 서영무용단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드는 걸 준비중인데 무용단과 송원대 학생들이 잘 결합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겁니다."

한국무용은 나이가 들수록 깊은 맛과 섬세한 감성 표현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장르다. 60~70대가 되도 무대에서는 '영원한 광주의 대표 춤꾼', 그대 서영씨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또 다른 꿈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

U대회 응원 '사랑의 향연'

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11일 풍암호수공원

문화예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단장 나덕주)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축하하기 위해 오는 11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이란 주제로 631번째 공연 '사랑의 향연'을 펼친다.

서구청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김상기 예술총감독의 사회로 트로트(정상·

김성원), 아코디언(맘마소 하모니), 색소폰(박우주), 남도민요(최혜정·마서란·양정연), 7080 통기타(김동규), 벨리댄스(하리벨리), 마술(엘비스매직), 희곡(김상기) 등 다양한 예술 공연으로 꾸며진다.

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은 이번 공연에 이어 8월5일, 9월9일, 10월7일, 11월4일 등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 풍암호수공원에서 '사랑의 향연'을 진행한다. /김경인기자 kki@

광주문화재단, U대회 관광객 음악교실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아리랑 음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아리랑 음악교실'은 오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4회 광주아리랑 대축전'의 사전프로그램이다.

'아리랑 음악교실'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오후 2시, 유니버시아드파크에서 진

행된다. 조오환 진도민속문화예술단장이 강사로 나서 진도아리랑 등을 교육하고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접수는 10일까지 유니버시아드파크 안에 설치된 '아리랑 음악교실' 부스 현장에서 진행되며, 기념품도 준다. 선착순 20명 무료.

문의 062-670-797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수령 40~50년생 조림
50만주(현재 묘목 : 주당 3000원)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8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수암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록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010-5536-0382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차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질감시공, 질감시공, 질감시공, 질감시공, 질감시공

홈에디에 방문해서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10-6603-0405

경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010-511-0444